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고로쇠	우리몸에 이로운 고로쇠
5. 고로쇠	<p>여러분들 혹시 고로쇠나무 수액을 드셔 보셨습니까? 고로쇠나무는 통일신라 말에 도선대사가 백운산에서 오랜 참선 끝에 일어나려 하였으나 무릎이 펴지지 않자 곁에 있는 나무를 잡고 일어서다가 나무가 부러지며 그 틈에서 흐르는 수액을 받아먹고 곧장 무릎이 펴졌다합니다. 그리하여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의미의 골리수(骨利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나무입니다. 골리수(骨利水)가 점차 변해서 고로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사이의 전쟁 때 지치고 부상당해 도망가던 병사들이 고로쇠 수액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 전쟁에서 대승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로쇠나무 수액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질 정도로 이른 봄 고로쇠나무 수액은 우리 몸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나무에 도끼나 톱으로 큰 상처를 내어 채취하다가 요즘은 작은 구멍을 뚫어 채취합니다. 수액을 채취하는 것은 결코 나무에 대하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로쇠 물은 도토리과 같이 우리가 먹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데 나무를 확대하고 그것이 몸에 좋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채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태 파괴를 하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p>

#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주요용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몸에 이로운 고로쇠</li> </ul>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주 유명한 단풍나무 종류에 고로쇠 나무가 있다. 고로쇠 나무는 다섯에서 일곱 갈래로 갈라져 있으나 갈라짐이 그리 깊지 않고 잎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결각지지 않아 단순한 느낌을 준다. 이 고로쇠 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다.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병사들이 섬진강을 옆에 끼고 중간에 서 있는 백운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한 신라 병사가 목이 말라 샘을 찾았지만 눈에 보이질 않던 차에 마침 화살이 꽂힌 나무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얼름 그 물을 마셨더니 갈증을 풀어 줬을 물론이고 힘이 용솨음쳐 백제국늘 무릎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고로쇠나무라고 한다.</li> <li>○ 산의 숲 속에서 자라는 갈잎큰키나무. 20m정도 높이로 자란다. 가지에 2장씩 마주나는 잎은 긴 잎자루가 있고 둥근 잎몸은 손바닥처럼 가장자리가 5갈래로 갈라진다. 5월에 가지 끝에 자잘한 연노란색 꽃이 모여핀다. 열매의 양쪽 날개는 여덟 팔자로 벌어진다. 이른봄에 나무에 물이 오를즈음 줄기에 상처를 내어 나오는 수액을 받아마시면 신경통에 좋다고 한다.</li> </ul>
참고문헌 및 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이유미/현암사 p168 식물관찰도감/윤주복/진선출판사 p132

